포스코, 글로벌 모범시민위크 '기업시민' 창출 매진

포스코그룹이 9~16일 국내외 2만7000명 임직원들과 봉사활동을 펼치는 '2023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를 진행했다.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는 전 세계 포스코그룹의 사업장이 소재한 곳에서 임직원들이 나눔을 펼치는 특별봉사주간으로 지난 2010년 이후 14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임직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창단한 '포스코봉사단'이 20주년 맞는 해로 이번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의 콘셉트도 지난 20년간 이어온 나눔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해 간다는 의미인 '온고지신'으로 정했다.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김학동 부회장, 광양주재 사장단은 지난 13일 광양 태인동 문화재 김 시식지에서 문풍지 교체, 마루 콩댐 작업 등 문화재 돌봄 활동에 참여했다.

광양 김시식지는 세계 최초 김을 양식한 김여익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광양은 세계 최초 김 양식지이자 오늘날 단일규모 세계 최대 제철소를 보유한 지역으로 이번 봉사활동은 포스코와 광양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의 역사를 상징한다.

최정우 회장은 정인화 광양시장과 함께 광양제철소 건설 당시 이주민들이 정착한 광양 광영동 하광마을을 찾아 'Change My Town' 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

'Change My Town' 은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과 광양시청 봉사단, 협업기관 관계자들이 한 마음에서 펼치는 연합 봉사활동이다. 이 날은 30여개 재능봉사단과 광양시청 관계자 등 총 400명이 함께 전기수리, 방충망 교체 등 마을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주민들에게 꽃꽂이·유리공예·풍선아트 등 체험과 간식을 제공해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포스코그룹(회장 최정우)은 지난 9~16일 국내·외 포스코그룹 사업장에서 2만7000여 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펼치는 특별봉사활동 '2023 글로벌 모범시민위크' 행사를 진행했다. 포스코 그룹 제공

국내외 2만7000명 봉사활동 14년째…나눔문화계승 선도
1호 자매결연 하광마을 방문
호주·멕시코 등 해외 법인서 바자회·물품기부 기념 행사

하광마을은 1988년 4월 포스코와 최초로 결연을 맺은 1호 자매마을이다. 포스코는 하광마을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포항과 광양 200개 마을·단체와 결연을 맺고 지역 특산품 구매, 농번기 일손돕기, 마을 시설물 보수, 환경 정화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 공생을 실천하고 있다.

전기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동민 봉사단원(광양제철소 제선설비부 소결정비섹션)은 "마을민과 함께 화합의 장을 펼치고 아이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서 펼쳐온 봉사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영동 지역주민 단체 금호회 이정현 회장은 "포스코와 광영동의 인연이 이어지며 상생의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를 계기로 위축됐던 전세계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의 나눔활동이 활기를 되찾았다.

포항·광양 등 각 지역 임직원들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운동회, 농촌 일손돕기, 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들이 등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한강 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외래식물제거 활동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목소리 기부 동화책 낭독 봉사를, 포스코이앤씨는 미래세대 대상 꿀벌 양봉 체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을 보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국에서도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호주와 멕시코 법인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 바자회와 물품 기부를,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맹그로브 숲 조성을 통한 생태계 보호 활동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펼친다.

한편, 포스코는 14일 포스코봉사단 20주년을 맞이해 봉사단원과 지역 협업기관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해 우수봉사자 시상식과 축하행사를 진행했다. 2003년 5월29일 임직원 중심으로 창단한 포스코봉사단은 현재111개 재능봉사단을 포함한 500개의 봉사단이 활동 중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눔활동을 펼치는 포스코그룹 기업문화를 정착시켰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올해 포스코그룹은 포스코봉사단 창단 20주년과 함께 임직원 급여1%와 회사 매칭그랜트로 운영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는다"며 "기업시민 경영이념하에 사회공헌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포스코는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제철소, 환경개선·시설보수…'체인지 마이 타운' 지역밀착 공헌활동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가 'Change My Town' 프로그램과 연계하며 광양시 마을 곳곳에서 환경개선과 시설 보수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 'Change My Town' 프로그램은 직원이 직접 공헌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실행하는 기부자 주도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찾고 이를 개선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도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0~11일 녹색재능봉사단, 나눔이 부부봉사단 등 봉사단을 비롯해 후판부, 냉연부 등 현업 부서 직원들이 각 마을에서 개선 활동이 필요한 환경 요인을 찾고 이를 직접 해결하는 'Change My Town' 활동을 전개했다.

지역사회 녹지공원 조경 관리 활동을 펼치는 녹색재능봉사단은 지난 10일 광양시 진월면 '노경회(노인을 공경하는 모임)' 노인복지센터의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 마당 정원수 관리와 노후 설비를 수리하는 활동을 펼쳤다.

녹색재능봉사단은 조경관리 재능을 발휘해 복지센터 주변 마당을 가꾸고 정원수 관리는 물론, 실내 빗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수 작업도 실시했다. EIC기술부 등 전기 설비를 다루는 현업 부서와 연계해 해당 부서 직원들도 동참하며 전기 콘센트 등 노후화된 전기 설비를 수리해 현업 직원의 역량을 공헌활동에 적용시키는 운용의 묘미를 발휘했다.

광양제철소 축구동호인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광양제철소 축구연합회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슛팅, 드리블, 패스 등 축구 기본기 교육을 비롯해 풋살경기 등을 펼쳤다. 광양제철소 제공

포스코봉사단 20주년 기념행사

진월면 노인복지센터 수리 등
녹색·나눔이부부봉사단 총력
축구연합회, 아동센터와 경기
장애인돌봄활동 등 함께 참여

광양제철소 직원과 직원 부부로 구성된 '나눔이 부부봉사단'은 광양시 골약동 황방마을 경로당에서 정리정돈과 청소 등 환경개선활동과 함께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수납장을 설치하고 배식 봉사까지 펼쳤다. 같은 시간, 광양읍 관동마을에서는 광양제철소 후판부 직원들이 마을회관 주변 길거리를 보수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안전한 마을을 만들었다.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공헌활동도 동시에 전개됐다. 광양제철소 축구동호인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광양제철소 축구연합회가 지역아동센터와 협업해 아이들에게 슛팅, 드리블, 패스와 같은 축구 기본기를 교육하고 팀을 짜 풋살경기를 진행했다. 수혜자인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물론 정서개선을 도모했다.

광양제철소 냉연부 직원들이 자매마을인 광양시 골약동 기동마을을 찾아 이곳 주택의 방충망을 교체하고 문패를 다는 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일조했다.

이후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 기간 동안 'Change My Town' 활동의 일환으로 각 재능봉사단과 현업 부서 직원들이 참여해 △금호동 경로시설 △광영동 하광마을 △성황동 용장마을 △태인동 도촌마을 △황길동 하포마을 등 광양에서 조경관리, 환경정화 및 가로등·전기설비·공용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보수 활동을 펼친다.

이밖에 △장애인 돌봄활동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아동들과 함께하는 플로깅(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봉사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펼친다.

광양=안영준 기자